

일본에서의 아태지역 연구의 현황과 과제

- 한국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

송 석 원

경희대학교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V. 우리에게 주는 시사 : 결론에 대신하여 |
| II. 아태지역 연구의 전사 | 참고문헌 |
| III. 아태지역 연구 현황과 특징 | Abstract |
| IV. 일본에서의 아태지역 연구의 과제 | |

Key words(중심용어): 일본(Japan), 아시아태평양지역(Asia-pacific Area), 지역연구(Area Study),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근대 민족주의 형성기 이래의 일본에서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의 동향을 역사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연구가 누가,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정치적·정책적 고려 및 학문적 관심에 의해, 어떠한 지역을,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조력을 얻어, 구체적으로 동 지역의 무엇에 대해 연구하였는지를 시계열로 분석, 정리하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가 갖는 특징적인 요소를 도출해내고자 한 것이다.

지역연구가 제국주의 정책의 파생물로서 그 자체가 ‘추악한 용어’라는 사이드의 지적은 전전(戰前, pre-war)기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전전기 및 전간(戰間, inter-war)기, 일본의 아태지역연구는 제국주의적 전쟁 수행의 목적에 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아태지역의 정체성과 일본의 지배적 우월권의 확립에 이바지하였다. 전후(戰後, post-war) 일본의 아태지역연구는 전전기의 반성에 서서 아시아의 역동성에 주목하는 연구하는 한편, ‘지배’에서 ‘공생(共生)’의 모색이라는 연구 프레임의 전환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체계의 재정비가 아태지역연구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I. 머리말

특정 국가 혹은 지역에 초점을 맞춘 학문적인 성찰의 역사는 사실 오래된듯하면서도 짧다.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¹⁾, 호이징거(Johan Huizinga)의 『미국문화론』,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미국의 민주주의』, 마르코 폴로(Marco Polo)의 『동방견문록』, 박지원(朴趾源)의 『열하일기』, 신유환(申維翰)의 『해유록-조선통신사의 일본기행』 등을 비롯하여 기타 수많은 저서들이 원래 의도했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특정 지역에 대한 일급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훌륭한 지역연구서로서의 가치 역시 내포하고 있음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물론 이들 저서가 오늘날 말하는 지역연구의 범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또한 마찬가지로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사실상 인류의 역사는 지칠 줄 모르는 타국(他國), 이국(異國), 타자(他者)에 대한 관심, 교류, 협력, 갈등 등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자로서의 타 지역에 대한 초기의 관심은 결과적으로 실로 위대한 지역연구의 지적 유산을 생산하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초기의 지역연구서는 대체로 이국취향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학문으로서의 지역학은 아직 미발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타 지역에 대한 정보 역시 있으면(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채워져야만 하는 ‘그 무엇’인가도 아니었다.

지역연구가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체계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한 것은 아무리 길게 보아도 지금으로부터 100년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지역이 연구의 중심을 이루게 된 것은 역시 식민지 전쟁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지역연구는 새로운 신생학문이라 할 수 있는데, 지역연구의 출발이 식민지 전쟁기라는 사실은 지역연구가 태생부터 제국주의적 시야에 의해, 그리고 제국주의적 수탈시스템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고안되었음을 의미한다. 지역연구의 초기의 선구적 업적들이 대체로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은 그 후에도 학문으로서의 지역연구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에루살렘 출생의 아랍인이며 저명한 중동연구가인 사이드(Edward. W. Said)가 그의 대표적인 저서 『오리엔탈리즘』에서 지역연구라는 말이 ‘추악한 신조어(ugly neologism)’²⁾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이드가 초기 지역연구의 제국주의정책에의 봉사자 및 침병으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환언하면, 초창기의 지역연구가 사실은 서유럽의 제국주의 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이 사이드의 확고한 결론이었다. 지역연구에 대한 사이드의 지적은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³⁾ 지

1) 물론, 이탈리아가 오늘날의 이탈리아로 통일된 것은 훨씬 후의 일로서 르네상스 시기에는 오늘날의 이탈리아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르크하르트의 저서는 ‘오늘날의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기의 문화’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는 르네상스 시기의 오늘날의 이탈리아의 문화에 대한 일급의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2) Edward. W. Said, *Orientalism*, Pantheon Books, 1978, p.53.

3) 야노 투루(矢野暢)는 사이드의 이 말을 가리켜 “그것(지역연구-송석원 주)이 아직 학문적인 존엄성과 정통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비해 (외형상으로) 큰 형상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하

역연구가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의 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 것은 이러한 지역연구 자체의 태생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창기의 지역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연구 자체가 학문적이기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진행되었다. 당연히 연구에 참여한 학자연구자들의 역할은 국가 기구에의 봉사로서 특징지어졌다. 연구의 아이템, 어젠다 등은 제국주의적 팽창이라는 국가목표에 충실하게 설정되었으며, 그러한 국가목표에 부응하는 형태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국주의 시기의 정치과잉이 학문을 정치의 부산물로 재편성해갔다. 둘째, 연구의 주도자는 서유럽⁴⁾이었으며, 연구의 대상이 된 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이었다. 제국주의적 질서의 창출자가 서유럽이었다는 사실의 당연한 귀결로서 지역연구는 서유럽에 의해 주도되어 갔고, 대상 지역은 그들의 정치적 필요가 반영된 곳, 환언하면 그들의 세력권 확장과 관련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진행되어 갔다. 셋째, 앞의 두 특징과 연동되는 것으로서 연구 대상 지역의 낙후성과 그에 대한 서유럽의 사명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 지역의 미개/야만성, 혹은 반(半)문명성이 강조되고, 이들 지역을 문명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유럽인의 세계사적인 의무가 투사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사이드가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이다. 오리엔탈리즘이 유럽인들의 자의적인 지역인식의 한 전형⁵⁾이라는 사실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지역연구가 방법론의 정치(精緻)화와 함께 본격적인 학문적 성격을 강화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전후한 시기의 미국 학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지역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의 규정에서부터 지역을 인식하는 방법, 지역을 조사하는 방법 등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크게 발전해왔다.

한편, 일본에서의 지역연구 역시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을 반영하여 전개되었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일본에서의 지역연구는 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세력 확장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과 궤를 같이 한다. 환언하면, 전근대 전통시대에 동아시아 질서를 규율해왔던 중국 중심의 화이(華夷)적 조공시스템이 근대적 조약시스템으로 대체되는 가운데, 일찍이 근대 민족국가 수립에 성공한 일본이 조공시스템 붕괴 이후의 동아시아의 질서를 규율하는 실질적인 제국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에서 일본의 지역연구는 태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45년의 패전은 일본의 아태지역 연구, 나아가 지역연구 일반에 있어 중요한 또 하나의 전기였다. 일본에게 요청되는 지역연구의 필요성은 전전 및 전중의 그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아태지역을 바라보게 하였다. 비록 현대적인 일본의 지역연구가 어느 정도 식민지시대의 유산을 이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지역연구자들의 층이 두텁고, 일부 지역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지역연구 거점을 이미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연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양성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고, 현실적인

면서, 사이드의 지적이 납득이 되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야노 토루 편(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 역), 『지역연구의 방법』, 전예원, 2003(제3쇄), p.21.

4) 초창기의 지역연구를 주도한 서유럽인은 학자로서, 군인으로서, 정치인·행정가로서 지역연구를 주도해왔다.

5) 야노 토루 편(부산외대 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 역), 『지역연구와 세계단위론』, 전예원, 1999, p.22.

실용성만이 아닌 기초적인 지역연구 테마에 대해서도 각별한 연구지원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연구와 국가정책 및 산업계의 요구 등이 연계되어 체계적이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지역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아태지역의 무엇에 대해, 어떠한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의 연구결과를 생산해왔으며, 그러한 연구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소비되어왔는지에 대해 정리하는 것은 아직 지역연구의 연구토양이 척박한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함의를 던져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일본에서의 아태지역 연구의 발자취를 조망함으로써 일본에서의 지역연구, 특히 아태지역 연구의 특징과 과제 등에 대해 정리하고, 그것에서 도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연구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아태지역 연구의 전사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의 아태지역에 대한 연구는 그 시원을 제국주의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규율했던 중국 중심의 중화(中華)적 조공시스템이 근대적 조약시스템으로 대체되는 가운데, 중국을 대신하여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갔다. 일반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의 동아시아가 근대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충격'이 이들 지역의 근대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일본의 경우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근대는 서양의 충격에 뒤이은 '일본의 충격'에 의해 급격히 전개되어 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은 이후의 동아시아 질서가 일본에 의해 규율되어 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국과 중국의 근대가 일본으로부터의 외재적 힘에 의해, 혹은 그것에 조응(照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일찍이 서구적 근대를 흡수한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유지자, 곧 일본제국주의가 출현했다는 점은 그 후의 일본에서의 아태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큰 특징을 이루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러한 일련의 사정은 일본의 아태지역연구가 제국주의적 만족을 목표로 전개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일본의 아태지역 연구가 제국주의적 시야에서 포착되었다는 점은 일본이 주도한 제국주의적 지배질서가 붕괴될 때까지의 일본의 아태지역 연구 동향에 매우 큰 특징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첫째, 적어도 일본의 아시아 인식은 서양에서의 아시아 연구의 궤적을 이어받고 있다. 환언하면, 서양의 아시아 이해가 아시아 각 지역 혹은 국가에 대한 지리적인 조사연구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이러한 연구동향이 기본적으로 그들 국가들에서의 아시아 이권에의 개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 및 외교정책상의 필요에서 비롯되었던 것처럼, 초기단계의 일본에서의 아시아 연구조사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수립되고 또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방향에서의 일본의 아시아

연구에서 아시아는 일본제국주의의 완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본에 포섭되어야 할 존재, 즉 침략과 수탈의 대상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일본에서의 아시아 조사연구는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데 필수적인 병요지 지 작성과 외교·통산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이라는 요청을 지렛대로 삼아 형성되고 거기에 식민지의 영유와 경영이라는 목적이 부가되었다.⁶⁾ 이와 같이 학술적 지(知)의 자연스러운 발로이기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아태지역연구 역시 생성기의 서유럽의 지역연구의 특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본의 아시아 조사연구는 일종의 일본의 문명사적 사명감 속에 진행되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등에 의해 정밀하게 이론화된 서양의 문명을 정점으로 한 문명론의 입장이 그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반(半)문명의 일본이 미개 혹은 야만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아시아를 일본에 동류화시키는 작업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작업은 일본 이외에는 성취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일본의 아시아 연구의 저류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계몽사상이 사회를 압도하던 시기에 활약한 주요 논자들에게 있어 아시아, 중국(특히, 지나(支那)로 호칭되는 논의에서 그렇다) 등은 부정되어야 할 가치로 여겨졌다.⁷⁾

이 방향에 있어서의 일본의 아시아 인식은 비록 아시아제국을 미개 혹은 야만으로 파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시아제국과의 연대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입각하고 있다. 곧 아직은 아시아제국과의 친근감, 공속감 등에 기초하여 그러한 동질성을 확인코자 하는 데에 아시아 연구의 초점에 놓여 있었다. 결국, 일본에 있어 근린아시아는 적대하며 길항하는 외부인 동시에 구미에 대해서는 내부세계로서 일체화를 시켜야 할 지역이었다.⁸⁾ 후쿠자와의 탈아(脫亞)의 주장⁹⁾과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의 ‘아시아는 하나’¹⁰⁾라는 슬로건이 모두 일본인의 인식에 있어 수용가능한 아시아 인식일 수 있었던 것¹¹⁾은 아시아가 일본에 있어 외부인 동시에 내부이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다름 아니다.

셋째,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후의 일본의 아시아 이해는 급격히 아시아제국과의 거리감에 초점을 맞추어가기 시작하였다. 아시아제국이 일본의 ‘외부’적 지원에 의해서 반(半)문명, 나아가 문명으로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결코 용이(容易)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일본이 구체적으로 아시아를 ‘내부’화 시켜야 한다는 인식, 곧 아시아의 맹주화 혹은 아시아 지배권의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어 감에 따라, 점차 일본의 아시아관은 전반적인 ‘아시아 정체성’에 역점을 두어가

6) 야마무로 신이치에 의하면, 메이지국가에서 아시아는 무엇보다도 국방(國防)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즉 1871년 제정된 참모국 아시아 병제과의 담당사무가 “아시아 각국의 병제를 전임(專任)하며, 특히 지나(중국) 연해, 조선 영국령 인도, 네덜란드·스페인령 남양제도의 병비(兵備)에 대해 분석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야마무로 신이치(임성모 역), 『여럿이며 하나인 아시아』, 창비, 2003, p.45.

7) 따라서 이 시기에 내셔널리티를 주장하는 따위는 곧 일본의 아시아로부터의 이탈을 지향하게 된다. 가노 마사나오(김석근 역), 『근대 일본사상 길잡이』, 소화, 2004, pp.47-48.

8) 야마무로 신이치, 앞의 책, p.45.

9) 福澤諭吉, 「脫亞論」, 『時事新報』, 1885 참조.

10) 岡倉天心, 「東洋の理想」, 龜井勝一郎·宮川寅雄編, 『岡倉天心集』, 筑摩書房, 1968, p.6.

11) 야마무로 신이치, 앞의 책, p.45.

게 되었다. 이러한 방향은 일본에서의 이른바 아시아 맹주론, 탈아론(脫亞論) 등과 연동되어 전개되어 갔다.

넷째, 일본 제국주의의 세력범위의 확장과 궤를 같이 하여 아시아 연구조사의 범역이 확장되어 갔다. 다음의 <표 1>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의 조사연구가 타이완, 조선, 중국 등에 대해 집중되고 있었던 데 반해, 점차 인도차이나, 남양, 중근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이르기까지 조사연구의 범역이 확장되어 갔다.

일본의 아태지역 연구는 일본의 근린제국으로서의 중국, 만주, 타이완, 조선, 몽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다가 점차 일본의 제국주의적 기운이 성숙되어감에 따라 대상 지역 및 국가가 확대되어 갔는데, 이들 지역 대부분이 일본의 지배권이 미치는 영역, 즉 이익선에 포함되고 있었다는 점을 특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 특히 중국연구는 1898년 고노에 아쓰마로(近衛篤麿)가 설립한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 및 1901년 중일 경제제휴와 선린우호를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동아동문서원(東亞同文書院)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더욱이 훗날 만철조사부(滿鐵調査部)는 만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 중국, 몽고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연구의 총본산격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남양(南洋)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서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되어 관민협동에 의한 정보수집 및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남양지역에 대한 연구의 경우 남양협회(南洋協會)가 주도한 바 있는데, 이 협회의 기관지 『남양(南洋)』은 남양제도의 구관을 비롯하여 각종 다양한 정보수집 및 조사연구의 결과를 제공하는 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¹²⁾ 이밖에도 동방협회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타이, 자바, 인도, 시베리아 등지의 조사연구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남양조사는 1943년 남방총군 군정총감부 조사부의 요청으로 말레이·수마트라·버마를 만철조사부가, 필리핀을 미쓰비시 경제연구소가, 보르네오를 태평양연구소가, 자바를 도쿄상과대학(현재의 히토쓰바시대학) 부설 동아연구소가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¹³⁾

12) 남양에 대한 조사연구가 증후학(症候學), 병리학(病理學) 등의 시점에서 의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남양에 대한 제국주의적 시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富山一郎, 『暴力の豫感』, 岩波書店, 2002에 수록된 참고문헌을 참조할 것.

13) 야마무로 신이치, 앞의 책, p.53.

지 역	연 도	업 적
중 국	1887	『중국지리지 총론편』
	1889	『중국지리지 만주편』
	1893	『중국지리지 몽고편』
만 주	1895	『만주지리지』
	1911	『만주일반지』
몽 고	1908	『동부 몽고지』
	1915	『동몽고』
조 선	1888	『조선지리지』 (전8권)
타이완	1895	『타이완지』
베트남	1881	『안남사』
	1881	『안남사부도』
기 타	1881	『캄보디아지』
	1881	『아프가니스탄 지리지』
	1891	『페르시아기행』
	1892	『시베리아 지리지』
	1886	『중앙아시아 기행』
	1893	『동아 항구지』
	1887	『인도기행』
	1909	『이리 기행』

<표 1> 초기의 일본의 아시아연구 업적 일람

출처 : 야마무로 신이치(임성모 역), 『여럿이며 하나인 아시아』, 창비, 2003, pp.45-47.

한편, 일본에서의 중앙아시아 연구 역시 이러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식민지 정책과 밀접한 관계 속에 진행되었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1930년대 만주사변과 만주국 건설을 계기로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노구교사건(蘆溝橋事件)으로 중국과 대립이 심화됨으로써 스스로 세계질서를 재인식하고 새로운 활동기반을 찾아 아시아의 서쪽으로 진출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¹⁴⁾ 그런데 일본의 중앙아시아 연구에서 특징적인 것은 일본의 보수주의자, 보다 구체적으로는 오가와 슈메이(大川周明) 등의 역할¹⁵⁾이 크다는 점이다.

다섯째, 앞에서 든 특성의 자연스러운 귀결로 조사연구의 실질적인 내용이 지리지를 중심으로 한 것에서 구관(舊慣)조사, 사회체계조사 등으로 확대되어 갔다. 지리지에 대한 조사연구가 주로 군부의 주도 혹은 후원 아래 수행된 데 대해, 구관조사 및 사회체계조사 등은 정부나 민간 연구기관의 주도 하에 수행되었다. 예컨대,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의 『조선의 취락(朝鮮의聚落)』¹⁶⁾이나 스즈키 에이타로(鈴木榮太郎)의 『조선농촌사회답사기(朝鮮農村社會踏査記)』¹⁷⁾

14) 위의 책, p.51.

15) 오가와 슈메이는 자신이 직접 이슬람연구에 종사하기도 하였고, 후학들의 이슬람연구를 후원하기도 하였다.

등은 식민지 기관의 주도 및 후원 하에 진행된 조사연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 기관과 민간 연구자의 결합은 해당 지역에 대해 전국 구석구석에까지 조사연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실제로, 젠쇼나 스즈키의 연구에는 조선총독부의 존재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 일본인의 아시아에 대한 공간인식이 확장되고 정밀해지는 과정에서 군부나 식민지 통치기관, 개인의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표 2>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민간에서 조직된 협회나 조사기관의 활동도 주목을 요한다. 물론, 민간 연구기관의 활동 역시 국가의 정치적 필요에 공헌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일반적임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표 2> 전전 및 전중기의 일본의 아태지역 연구그룹

설립 연도	명 칭	설립주도자 및 주요 참가자	비 고
1879	도쿄지학협회	에노모토 다카아키 나가오카 모리나가	아시아에 대한 민간 연구의 선구
1886	라쿠젠도오(樂善堂)	아라오 세이	육군참모본부 중국과원
1890	일청무역연구소	라쿠젠도오	네즈 히토시, 『청국통상총람』
1898	동아동문회	고노에 아쓰마로 네즈 히토시	
1901	동아동문서원	네즈 히토시	중국사정에 정통한 외교관·실업가·언론인 배출
1891	동방협회	소에지마 다네토키	“동양인종 전체의 장래를 위해 목탁으로서 단초를 연다.”
1913	남양협회	이노우에 마사시	
1938	회교권연구소		
	만철조사부		국책회사

출처 : 야마무로 신이치, 앞의 책, pp.48-53.

이와 같이 일본이 아시아라는 공간=지역의 경계는 실로 일본의 경제적·군사적 진출에 따르는 형태로 유라시아 동단에서 서방과 남방을 향해 시야를 넓혀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아시아 공간 인식의 지평의 확대는 닥쳐올 미국 및 유럽과의 문명적 대결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의 세계최종전론¹⁸⁾은 태평양을 마주한 일본과 미국의 마지막 대결로 귀결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바, 이러한 세계최종전을 준비하기 위해 일본에게 필요하면서도 불가피한 동향으로서 아시아 공간=지역 인식의 서방 및 남방으로의 확장을 피하게 된 것이다. 일본이 중심이 되어 그 경계를 유럽과의 접경까지 확대시킨 아시아(=태평양)상의 구축은 미국과의 마지막 전쟁을 남겨놓은 일본에게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었다.

16) 朝鮮總督府(善生永助), 『朝鮮の聚落』, 朝鮮總督府, 1933-1935.

17) 鈴木榮太郎, 『朝鮮農村社會踏査記』, 『鈴木榮太郎著作集 5』, 未來社, 1973.

18) 石原莞爾, 『最終戰爭論』, 經濟往來社, 1972(복각판)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전전 혹은 전중기의 일본의 아시아 인식 지평의 확대가 기본적으로 일본에 의해 문명, 근대성 등을 이입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됨으로써 개별 지역이나 국가의 독자성에 대한 친착보다는 보편적으로 정체된 지역으로서의 아시아 이미지의 구축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아시아 각국이 배치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특기할만 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아시아의 어느 지역 및 국가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발전전략 및 가능성이 없는 국가로 모든 지역 및 국가가 전통적으로 역동성과는 거리가 먼 나태와 빈곤, 저개발, 오염되고 왜곡된 신체 등으로 다루어졌다. 아시아 지역=공간이 역동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일본의 동 지역에 대한 지배는 정당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귀결되어왔다.

Ⅲ. 아태지역 연구 현황과 특징

전전 및 전중기의 일본의 아시아연구가 많은 업적(그 부의 유산마저도 포함해서)을 보이고 있음은 이미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은 일본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시아 연구에 있어서의 전중과 전후의 단절과 연속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패전 직후의 일본은 미국에 의한 점령이 이루어졌고, 일본의 아시아 인식에 있어 중요한 구성 국가인 한국 및 중국과는 국교가 단절된 채였다. 이러한 점은 일본의 독자적인 아시아 연구조사를 제한하는 상황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과는 패전 후 20년 후인 1965년에 비로소 국교정상화를 이루었고, 중국과는 27년 후인 1972년에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복원되었다.

그 사이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민족 독립국가 건설기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기운을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한 것으로는 1955년의 반둥(Bandung)회의, 1957년 카이로 아시아-아프리카 국민연대회의 등이다. 이들 움직임에서 나타난 냉전체제에서 반식민주의, 비동맹주의에 근거해 독자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채택하는 활력을 지닌 아시아의 역동성은 예전의 전제와 정체의 아시아 인식을 근본에서 뒤집는 것이었다.¹⁹⁾ 전제와 정체의 아시아에 대신한 독립과 혁명주체의 아시아²⁰⁾가 전후 새롭게 형성된 일본의 아시아 인식의 공통항이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의 아태지역 연구가 과거의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국가정책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반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연구방향을 모색하려 할 때 관건이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성장의 현황을 세계체제적인 시야에서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 때 전전의 그것과 구별되는 전후 일본의 아시아 이해의 특징은 아시아 국가 및 지역의 개별성, 독자성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아시아를 전체로 포괄하던 데에서 벗어나 개별 지역 국가를 단위로 함으로써 전전 및 전중기에는 포착되지 않았던, 아니 포착할 수 없었던 개별 지역 국가의 다이너미즘이 비로소 중요한 조사연구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패전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에서는 아시아 경시가 지속되어왔다. 실제로, 일본의 학계에서는 1980년대까지도 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견지되고 있었다. 사실, 일본 학계는 20

19) 야마무로 신이치, 앞의 책, p.56.

20) 위의 책, p.55.

세기 내내 아시아 정체성의 유력한 이론적 제공자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그러한 아시아 경시는 지금 현재도 부분적이거나 연속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일본이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해방투쟁이나 민주주의 혁명,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강화 등에 대해 여타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연구비를 사용하고 있고, 역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연구업적을 축적해왔음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일본의 이러한 연구업적조차도 기본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정체성과 그에 비례한 만큼의 일본의 문명적 사명 등을 반영한 것이라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전후 오늘날까지의 일본의 아태지역 연구의 현황 및 특징을 간단히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전 이후의 일본의 아시아 연구는 대체로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연구는 패전 직후인 1946년 과거 만철조사부와 동아연구소 등의 관계자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중국연구소가 『중국자료월보』(1960년 이후 『중국연구월보』로 개명)를 간행하여 중국사정을 소개하였고, 1951년에는 현대중국연구회가 조직되어 현대 중국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 있다.²¹⁾ 패전 직후의 중국연구는 국교 미수립으로 인해 조사연구가 지극히 제한을 받았으며, 따라서 중국 측에서 나오는 관제언론의 보도나 서적 등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국교 정상화 이후 중국에의 조사연구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져 현재 세계적인 중국연구의 메카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와 교토대학의 인문과학연구소(중국실)는 그 연구업적에 대한 인용빈도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무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카잔카이(霞山會)에서는 일중관계기본자료집을 포함하여 2년에 한 번씩 『중국총람』을 펴내고 있고, 매월 『동아』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중국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중국연구의 제1세대인 일본교육 수혜자들의 경우, 그들의 중국연구에서 특히 카잔카이의 문헌에 크게 의존한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도 영미권에서의 중국연구자 및 중국대륙에서의 중국연구자들에게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의 문헌은 소중한 자료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밖에 한국과 관련해서는, 조선사연구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일본 내의 청구(靑丘)학회 역시 중요한 한국연구 모임이다.

둘째, 연구기관의 정비와 정부기관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전전 및 전중기의 일본의 아시아 연구가 다양한 연구기관이 산재한 가운데 이루어진데 대해, 전후의 그것은 대체로 아시아경제연구소와 일본국제문제연구소 등으로 수렴되어 전개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아시아경제연구소가 통산성,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외무성에 의해 각각 관할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외교와 통상의 필요에 의해서 해당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연구의 불가피성이 제기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은데, 전후의 일본의 아시아 연구 역시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연구기관 이외에 일본의 아태지역연구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은 특기할만 하다. 이것은 아마도 전전기 및 전중기와 전후기의 일본의 아태지역연구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일 것이다. 민간연구소가 연구를 리드한다는 점은 곧 정치적인 고려보다도 학술적인 지(知)의 축적 및 확장이 지역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

21) 위의 책, p.57.

는 것이기도 하다. 여전히 정부기관의 지원 등은 연구 환경 등의 조성에 있어 유효한 기능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연구가 정치에 부속되는 형태는 일단 지양(止揚)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학 내의 지역연구의 경우, 대체로 1교 1지역의 특성화전략에 입각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역량과 연구비 등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진다. 즉, 대학별 중점 거점 연구소를 선정, 육성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 및 슬라브 지역연구는 홋카이도(北海道)대학 슬라브연구소, 동남아연구는 교토(京都)대학 동남아연구센터 등으로 거점 대학별 중점 연구대상 지역이 확정되어 집중적이고 체계적이며 다변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는 아태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태지역을 포함한 지역연구가 일반적으로 특정지역 위주로 하나의 국가 및 지역만을 특화하여 연구하는 연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교토산업(京都産業)대학의 세계문제연구소는 이런 점에서 다소 예외적인 연구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도 동일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 국가들의 사정을 연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각 지역별 연구의 성과가 해당 지역연구자에게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지역연구 일반 연구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상호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예컨대, 인도네시아 연구자의 연구업적이 태국 연구자에게 읽히고, 태국 연구자의 업적이 말레이시아 연구자에게 읽히며, 말레이시아 연구자의 업적이 중국 연구자에게 읽히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인도네시아 자바에 대한 기어츠(Clifford Geertz)의 네가라(Negara)²²⁾에서의 분석들이 된 극장국가(theatre state)론을 태국의 입헌군주제 분석에 원용하는 것 등이다. 말레이시아의 국어정책과 싱가포르의 그것과의 비교를 통한 말레이 지역의 근대성 논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지역연구의 성과가 해당 지역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소통되는 한정적인 지(知)에서 머물지 않고 외부를 향해 발산하는 확산되는 지(知)로서의 아시아 연구를 구축해가고 있다.

다섯째, 관·산·학의 연계구조가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체계는 비록 지역연구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한 연구기금을 조성하여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관의 경우, 특히 외무성에서는 지역연구자의 연구대상 지역에서의 연구 활동이 종료된 후 그를 주제국 대사관의 조사연구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배려를 통해 연구자의 연구대상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의 확충과 연구의 질적 수준의 제고를 원조한다. 뿐만 아니라, 관·산·학을 중심으로 이론과 현장을 모두 포괄하는 소규모 연구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관·산의 경우 학문적 성과를 적절한 시기에 반영한 정책 및 사업계획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학의 경우 자신들의 이론적 연구결과와 관·산의 현장성을 결합시킴으로서 지역연구의 객관성 유지와 질적 수준의 제고를 가능케 하고 있다.

여섯째, 일본의 아태지역 연구의 주제가 실로 다양하다는 점이다. 국가정책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에서 그다지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지 않는 지역 및 국가의 그다지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주제에 대한 연구가 연구비의 보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야의 극명한 대조가

22) Clifford Geertz, *Negara : the theatre state in nineteenth-century Bali*,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참조.

사실상 지역연구 범위의 제약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본에서의 지역연구가 진정한 의미의 지역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곱째, 지역에 대한 연구가 기존의 독립된 분과학문에 의한 수평적 연구의 종합에 의한 이른바 학제적 연구에서 머물지 않고, 분과학문의 장벽을 넘어선 글자그대로의 지역연구방법론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전술한 교토대학 동남아연구센터의 경우,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의 공동연구, 곧 통섭적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가능해지고, 그 결과 연구업적이 다른 지역의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분야에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덟째, 지금, 현재만이 아닌 장기적 시점에 선 연구의 진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의 현황 및 특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러한 장기적 전망 속의 연구는 또 다시 주제에 대한 집중 분석을 가능케 하는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경제연구소 등이 2007년 12월에 실시된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조사 분석할 때, 복수의 연구자들이 연구에 동원되어 한국 내 복수의 지역에서 서로 다른 복수의 한국전문가 인터뷰 등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1회성 연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차분석을 동원하여 한국의 대선과정을 입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대선 후의 일본의 대한정책 구상에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²³⁾

IV. 일본에서의 아태지역 연구의 과제

일본이 아태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일본제국주의에 있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정치적 세력권의 범위가 1945년을 전후하여 크게 변모한 것도 주지하는 바와 같다. 아시아의 지배자로서의 위상의 유지와 상실이 일본의 아태지역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현대 일본의 아태지역연구는 불가피하게 ‘새로운 태생적 과제’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마무로 신이치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이 아태지역을 조사할 때에 과거의 일본과 근린아시아 각국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조사연구와 정책입안의 관계문제, 연구비 조성금의 수혜에 의한 조사연구에서의 가치중립성의 담보문제²⁴⁾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먼저, 일본과 근린아시아 각국의 관계설정의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의 일본의 아시아 연구가 질과 양 모두에서 선구적인 업적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거듭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본의 아시아 연구의 현재를 돌아볼 때, 과거 전전 및 전중기의 일본이 가졌던 아시아 경시를 얼마나 일본이 극복하고 있는가? 혹은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정체성론의 한 발신자였던 일본에서의 아시아 연구의 정치적 결과에 대한

23) 실제로 필자는 아시아경제연구소의 연구원과 한국의 대선에 대해 인터뷰를 하며 이러한 연구경향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24) 아마무로 신이치, 앞의 책, pp.60-62.

연구 차원에서 전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일본의 아시아성의 회복은 결코 용이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의 아시아 연구가 탈식민주의와 탈냉전, 나아가 계급과 젠더의 문제까지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연구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갖추어져 있느냐의 문제는 일본의 연구역량의 축적과 연구방법론의 발전=성숙 등과는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우면서도 오래된 문제이다.

일본의 아시아 연구 및 인식이 오랜 서구적 오리엔탈리즘을 넘어 아시아인의 아시아 연구 및 인식이 되기 위해서도 일본의 아시아로의 복귀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아시아 복귀가 그다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은 서구 기독교 문명사회 이외의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선진 자본주의 체제를 완성한 국가이다.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경제적인 수준이나, 정치적인 영향력, 민력(民力) 등에서 이미 아시아의 범주를 벗어나 있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아시아 연구 및 인식이 반드시 아시아적이어야만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동아시아 공동의 집 구상, 아시아경제공동체 구상 등에서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 한다면, 일본이 서구(선진 자본주의) 적인 시점이 아닌 아시아의 시점에 서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세계화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지역화의 동아시아적 전개에 있어서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류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일본과 아시아의 역사에 대한 일본 연구자의 역사인식의 문제이다. 현상분석에서 과거와의 연관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연구자 자신의 역사인식의 객관성과 함께,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이는 쪽에서의 역사인식이 중층(重層)적인 구조를 이루는 문제이다.

둘째, 조사연구와 정책입안의 관계문제이다. 비록 전후 일본의 아시아 연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일부의 조사연구가 단기적인 국가정책에의 소용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중동지역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일본 역시 자원 빈국으로서 특히 원유는 중동에의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당연한 결과로 일본은 중동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와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를 축적해왔다. 그러나 석유위기는 일본의 중동지역에의 관심이 “아라브가 아니라 아부라(아랍이 아닌 기름)”에 있음을 폭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결국, 지역에 관한 조사연구가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 이외에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해나갈 것인지는 본래 아시아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해서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²⁶⁾

셋째, 연구비 조성금의 수혜에 의한 조사연구에서의 가치중립성의 담보문제이다. 이 문제는 앞의 두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단 일본의 지역만의 문제도 아

25) 그러나 한편으로 야마무로 신이치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러한 석유위기가 일본에서의 중동연구의 진전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음은 물론이다. 야마무로 신이치, 위의 책, p.61.

26) 위의 책, p.61.

니며, 특히 일본의 아태지역연구만의 과제라고는 할 수 없는, 이른바 지역연구 그 자체가 갖는 보편적인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태지역연구 역시 그것이 지역 연구인 이상, 일반적인 지역연구가 깊어지고 있는 연구비 수혜와 연동된 조사연구의 가치중립성의 문제는 역시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아태지역연구가 이상과 같은 과제를 어떻게 극복해갈 것인가 하는 점은 일본에서의 지역연구의 질적 수준의 제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본 속의 아시아(일본인의 의식 속에 있는 아시아 인식)’, 혹은 ‘아시아 속의 일본’을 구상해 가는데 있어 필요하고도 불가결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구상의 논의의 전개과정은 야마무로 신이치가 지적한 일본의 아시아연구의 과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아시아상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아태지역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이론적 토대의 구축 및 실현방안의 마련이다.²⁷⁾ 이러한 구상이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도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의 구축은 피할 수 없는 전제조건인 바, 현재 북한의 핵실험 이후의 6자회담의 진전과 그 속에서의 일본의 대북 강경책 등이 이러한 구상을 근거에서 가로막고 있다. 일본정부 역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미 편중외교²⁸⁾와 그와 연동된 형태로서의 아시아 경시, 한일관계 및 중일관계에 있어서의 역사주권을 둘러싼 논쟁의 지속²⁹⁾, 나아가 북핵 처리의 전제로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선결 해결에의 집착³⁰⁾ 등이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여 생각할 때,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학문적으로도 국가 정책적으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역시 앞의 일본이 얼마나 아시아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의 연구가 탈식민주의와 탈냉전, 나아가 계급과 젠더 등의 문제 등을 시야에 넣은 연구가 축적되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본에서의 전후 아시아 연구가 탈냉전과 탈식민주의, 그리고 계급과 젠더를 아우르는 양질의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왔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역행하는 내셔널리즘이 강화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관련한 연구가 과연 이러한 일본 국내 연구 분위기를 어떻게 반영해나갈 것인가가 일본의 아시아 연구와 인식의 지평 정립 및 확대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점차 논의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른바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구상³¹⁾

27)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谷口誠, 『東アジア共同體：經濟統合のゆくえと日本』, 岩波書店, 2004 참조.

28) 일본외교의 중심축이 대미외교에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9) 특히, 한일 간의 역사주권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는, 송석원, 「한·일 역사주권 논쟁에 따른 대응방안」, 『국제문제연구』(2005년 봄호), 2005 참조.

30)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수상의 대북정책의 기초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아베의 대북정책의 전체상에 대해서는, 安倍晋三, 『美しい國へ』, 文藝春秋, 2006 참조.

31)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青木保・進藤榮一, 「アジア・アイデンティティの模索が始まった」, 『外交フォーラム』, April 2008, pp.64-69 참조.

은 매우 주목된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타자와의 거리감을 좁혀나가는 동시에 공속감의 확대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아이덴티티와 관련한 구체적인 모습을 도출해낼 수만 있다면, 위에서 든 일본의 아태지역연구에 있어서의 제 과제를 어찌면 일거에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더욱 세련시키고, 아시아 아이덴티티의 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동시에 일본외교에 차지하는 아시아의 비중이 함께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대미편중외교 속에 언제나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중요성밖에 갖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 외교가 지속되는 한, 일본의 대아시아외교는 이른바 반응형 외교³²⁾의 특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또한 일본의 아태지역연구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의 『일본의 미들파워외교(日本の「ミドルパワー」外交)』³³⁾는 논리의 정합성과는 무관하게 주목되는 논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이러한 일본외교의 현재적 위상 속에서, 그리고 일본의 지역연구 및 인문사회과학적인 연구의 위상 속에서 일본의 아태지역연구는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일본에서의 아태지역연구는 현재 세계적인 연구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의 일본의 아태지역연구가 몇 가지의 과제도 안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연구결과를 생산해갈 것이다. 그것은 기초적인 연구도태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아태지역연구에 있어서의 일본의 주도적인 연구는 지속되어갈 것이다.

V. 우리에게 주는 시사 : 결론에 대신하여

일본에서의 아시아 연구의 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 양산된 연구업적이 아시아 연구의 중요한 문헌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낳기까지 일본에서의 연구 토양은 꾸준한 질적 도약을 거듭해온바, 우리나라에서의 아태지역 연구에 던져주는 시사점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연구에 있어 외교통상부 등 정부기관 등과의 유기적 연계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 국가에서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연구 종료 후, 주재국의 대사관에서 약 1년에서 2년 정도의 조사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그 기간 동안에 각종 연구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연구대상국의 정부 관료 및 학자 등의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의 충실을 기해갈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인 시야를 확보해가야 한다. 지역연구는 단기적인 현황의 분석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장기과동을 염두에 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대상 국가 및 지역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전망을 가능케 하는 연구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인 전망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대상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상대적으로 지

32) 일본외교의 특성으로서의 반응형외교의 개념과 구체적인 사례분석에 대해서는, 宮下明聰・佐藤洋一郎 編, 『現代日本のアジア外交：對米協調と自主外交のはざままで』, ミネルヴァ書房, 2004 참조.

33) 添谷芳秀, 『日本の「ミドルパワー」外交：戦後日本の選擇構想』, ちくま新書, 2005 참조.

엽적인 주제에 대해서까지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응용만이 아니라 기초적인 연구에 연구비 조성이 책정되어야 한다.

셋째, 연구거점의 집중화가 필요하다. 국책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연구소가 모든 지역을 망라하는 형태로 구성, 연구를 진행해가기보다는 1개소의 1개 지역 및 국가로 특성화하는 연구거점의 집중화가 연구의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필요하다. 연구지원이 선택과 집중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은 그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지역연구의 성과가 연구대상 국가의 연구자에게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충분한 지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업적이 궁극적으로는 일반인들의 지적 교양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연구서와 함께 읽기 쉬운 교양서 및 해설서 등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며, 이러한 연구 환경이 다시금 연구를 더욱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순기능의 사이클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동일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 국가들의 사정을 연구하는 형태의 연구를 지향해갈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거점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당장이라도 차선책으로서의 이러한 방향에서의 연구에 지역연구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가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역연구가 종합적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재론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역연구는 정치학, 역사학, 사회학 등의 기존의 분과학문 영역에 크게 치우쳐 있으면서도 상호간의 소통이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연구는 전통 분과학문의 범주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³⁴⁾ 이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지역연구가 방법론적으로 시민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존의 전통 분과학문의 분류를 넘어 다양한 학문적 소양을 겸비한 연구, 혹은 기존의 분과학문 간의 통섭적 연구, 그리고 새로운 학문적 방법론으로서의 지역연구방법론에 입각한 연구 등의 축적에 의해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확립해가야 할 것이다.

34) 전통적인 분과학문 속에서 이루어진 지역연구와 지역연구방법론에 입각한 지역연구의 차이 등에 대해서는 야노 토루 엮음(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 옮김), 『지역연구의 방법』, 1997 참조.

참 고 문 헌

- 가노 마사나오(김석근 역). 『근대 일본사상 길잡이』. 소화. 2004.
- 송석원. 「한·일 역사주권 논쟁에 따른 대응방안」. 『국제문제연구』(2005년 봄호). 2005.
- 야노 토루 편(부산외대 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 역). 『지역연구와 세계단위론』. 전예원. 1999.
- 야노 토루 편(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 역). 『지역연구의 방법』. 전예원. 2003(제3쇄).
- 야마무로 신이치(임성모 역). 『여럿이며 하나인 아시아』. 창비. 2003.
- 岡倉天心. 「東洋の理想」. 龜井勝一郎·宮川寅雄編. 『岡倉天心集』. 筑摩書房. 1968.
- 谷口誠. 『東アジア共同體：經濟統合のゆくえと日本』. 岩波書店. 2004.
- 宮下明聰·佐藤洋一郎編. 『現代日本のアジア外交：對米協調と自主外交のはざままで』. ミネルヴァ書房. 2004.
- 安倍晋三. 『美しい國へ』. 文藝春秋. 2006.
- 福澤諭吉. 「脱亞論」. 『時事新報』. 1885.
- 富山一郎. 『暴力の豫感』. 岩波書店. 2002.
- 石原莞爾. 『最終戰爭論』. 經濟往來社. 1972(복각판).
- 鈴木榮太郎. 『朝鮮農村社會踏査記』. 『鈴木榮太郎著作集 5』. 未來社. 1973.
- 朝鮮總督府(善生永助). 『朝鮮の聚落』. 朝鮮總督府. 1933-1935.
- 添谷芳秀. 『日本の「ミドルパワー」外交：戦後日本の選擇構想』. ちくま新書. 2005.
- 青木保·進藤榮一. 「アジア・アイデンティティの模索が始まった」. 『外交フォーラム』. April 2008.
- Clifford Geertz. *Negara : the theatre state in nineteenth-century Bali*.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 Edward. W. Said. *Orientalism*. Pantheon Books. 1978.

Abstract

The Asia-Pacific Area Study in Japan

- its current status and problem -

Song, Seok Won³⁵⁾

The aim of this study is to historically examine a trend of the Asia-Pacific research in Japan since modern nationalism setablished there. The main focus is on who has researched the Asia-Pacific region in Japan, why has studied it and which area has been studied so far. Also, I move on to examine who has helped the study and what precisely has done as a time order. By dwelling upon these examination, I will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ia-Pacific area study carried out in Japan.

Edward Said has pointed out that an area study is an outgrowth of imperialism and the study itself is 'ugly neologism.' Said's opinion can be applied to the Asia-Pacific study during the pre-war period. The area study in Japan was for the purpose of the war under the theme of imperialism during the pre and inter-war period. As a result, the study made a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identifying of the Asia-Pacific area and Japanese holding a prominent position. The study about the Asia-Pacific area in the post-war period pays attention to a power of Asia under reflection on pre-war period and shifts its work frame from 'domination' to 'living together.' Reorganization of the study system also gives an energy to the Asia-Pacific area study.

■ 논문접수일 : 2008년 4월 5일, 논문심사일 : 2008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 2008년 5월 23일

35)Professor, School of Social Science, Kyung Hee University.